

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5월 3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.

## < 사랑하는 자여! >

요한삼서1:2 / 새찬송가 413 (통일 470) 내 평생에 가는길

### 1. 성경의 진리는 잘됨의 순서가 분명합니다

성경은 먼저 영혼 즉 심령이 잘 돼야 그 후에 범사의 형통함과 육신의 강건함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. 이에 대해 예수님은 소출이 풍성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 하셨습니다(눅12:18-20).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자와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. 그래서 믿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생각을 정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,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(마7:13,14).

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의 영혼이 잘되도록 훈련시키십니다. 아브라함, 이삭, 야곱, 요셉, 모세 등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러했습니다.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시 범사에 고난이 있고 몸이 불편하게 되더라고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실천했습니다.

### 2.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

스스로 진리를 깨닫는다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을 때, 주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잘됩니다. 엄밀히 말하면 내 육신이나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오직 내 영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내 육신이나 생활이 내 영혼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내 육신이나 생활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위대한 것입니다. 다윗도 시편 103편에서 이를 고백했습니다.

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써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(시51:3,4),(시32:1-5). 또 내 영혼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지혜를 받음으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(고전3:18), (약1:5).

더불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즉 내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(사40:28-31). 사람이 피곤한 이유는 육신이 힘들고 병들고 생활이 고달파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허무하고 낙심하여 절망했기 때문입니다. 솔로몬도 모든 것이 형통했으나 그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지 못했을 때 허무와 피곤을 고백했습니다(전1:8).

결국 우리는 삶의 모든 일이 힘들고 육신이 고단하더라도 영혼이 잘 되는 일이라면 서슴지 말아야 합니다.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뒤이어 육신과 삶의 환경에서도 건강과 복을 받습니다.

또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. 더불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부지런히 찾아보고 실행해야 합니다(엡5:10).

### < 적용 & 실천 >

우리는 범사의 문제나 육신의 질병 혹은 환경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문제와 질병이 있더라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!